

이 보고서는 코스닥 기업에 대한 투자정보 확충을 위해 발간한 보고서입니다.

기술분석보고서

 YouTube 요약 영상 보러가기

에프엔에스테크(083500)

기계·장비

요약

기업현황

시장동향

기술분석

재무분석

주요 변동사항 및 전망



작성기관

NICE평가정보(주)

작성자

전재원 전문연구원

- 본 보고서는 「코스닥 시장 활성화를 통한 자본시장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코스닥 기업에 대한 투자정보 확충을 위해,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의 후원을 받아 한국IR협의회가 기술 신용평가기관에 발주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 본 보고서는 투자 의사결정을 위한 참고용으로만 제공되는 것이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보고서를 활용한 어떠한 의사결정에 대해서도 본회와 작성기관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본 보고서의 요약영상은 유튜브로도 시청 가능하며, 영상편집 일정에 따라 현재 시점에서 미 게재 상태일 수 있습니다.
- 카카오톡에서 “한국IR협의회” 채널을 추가하시면 매주 보고서 발간 소식을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본 보고서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작성기관(TEL.02-2124-6822)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에프엔에스테크(083500)

디스플레이 및 반도체 장비, 부품 전문기업

기업정보(2021/09/30 기준)

대표자	김팔곤/양상재
설립일자	2002년 03월 18일
상장일자	2017년 02월 27일
기업규모	중소기업
업종분류	그 외 기타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업
주요제품	OLED WET 장비

■ 디스플레이 및 반도체 장비 사업 역량 구축

에프엔에스테크(이하 동사)는 2002년 기계장비 제조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현재 고부가가치의 디스플레이 및 반도체 장비, 부품 분야의 전문기업으로 자리매김하였다. 주요 제품은 디스플레이 기판의 생산을 위한 세정, 식각, 박리 등의 핵심 공정 장비와 초 순수 내의 유기물을 제거하는 TOC산화장치 및 UV LAMP, 반도체 웨에퍼 평탄화 공정에서 사용되는 연마 패드 등이 있다. 동사는 오랜 기간 축적된 노하우와 꾸준한 기술 개발 역량을 바탕으로 설계, 제작, 시험까지 가능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고품질의 제품을 국내외 주요 기업에 공급하고 있다.

■ 지속적인 연구 및 투자를 통한 기술 개발

동사는 기업부설연구소를 17년 이상 운영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투자와 연구개발을 바탕으로 원천기술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고객사와 협업, 정부 과제를 통해 기술 역량을 내재화하였으며, 기계 및 제어시스템의 융합을 위해 자체적으로 연구 개발을 지속하고 있다. 또한, 생산성 향상 및 제어 고도화를 위해 공정, 제어 개선 부문에도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 핵심 기술을 통해 유연한 시장 대응 전망

국내외 디스플레이 및 반도체 시장 규모는 양호한 성장세를 보이며 확대되고 있다. 해당 산업은 기계 및 제어 기술이 접목된 분야이며 신규 기업의 진출이 어렵고, 높은 수준의 기술력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 동사는 기존에 구축된 기계 및 제어 기술을 발전시켜 이에 대응하고 있다. 시스템 제어 솔루션, 기계 구조해석, 화학적 중합 기술 등 내재화된 기술을 기반으로 목표 시장 내에서 안정적인 사업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세정보(2021/12/13 기준)

현재가(원)	12,150
액면가(원)	500
시가총액(억 원)	1,019
발행주식수	8,385,722
52주 최고가(원)	16,400
52주 최저가(원)	9,950
외국인지분율	0.44%
주요주주	한경희

요약 투자지표 (K-IFRS 연결 기준)

구분 년	매출액 (억 원)	증감 (%)	영업이익 (억 원)	이익률 (%)	순이익 (억 원)	이익률 (%)	ROE (%)	ROA (%)	부채비율 (%)	EPS (원)	BPS (원)	PER (배)	PBR (배)
2018 (개별)	464	(33.2)	27	5.8	32	6.9	8.0	5.1	62.0	463	6,191	8.9	0.7
2019 (개별)	341	(26.4)	22	6.3	14	4.2	3.3	2.0	70.2	198	6,319	43.0	1.3
2020	919	-	111	12.1	82	8.9	-	-	87.5	1,030	7,128	11.9	1.7

기업경쟁력

고부가가치 장비 제조

■ 디스플레이 및 반도체 장비

- 중소형 및 대형 OLED 생산용 장비
- CMP PAD, UV LAMP 등 공정용 부품, 소재

특허 경영

■ 지식재산권 확보를 통한 기술장벽 구축

- 국내 등록 특허 48건, 실용신안 2건, 디자인 1건
- 최신 등록 특허 : 유체 혼합물 분사장치 및 세정장치 (제10-2190903호)

핵심기술 및 취급 품목

핵심기술

■ USC(Ultrasonic Cleaner)에 의한 건식 세정

- TFT LCD, PDP, AMOLED 등 적용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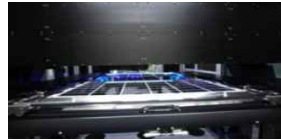
■ 친환경 재활용 재생(Recycle) CMP PAD

- 반도체 생산 원가절감,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주력 품목

디스플레이

세정 장비



박리 장비



반도체

CMP PAD



UV LAMP



ESG 현황

Environment

항목	현황
환경 정보 공개	■
환경 경영 조직 설치	■
환경 교육 수준	■
환경 성과 평가체계 구축	■
온실가스 배출	■
에너지, 용수 사용	▣
신재생 에너지	■

▣ : 양호 ■ : 미흡 □ : 확인불가

Social

항목	현황
인권보호 정책 보유	■
여성/기간제 근로자 근무	▣
협력사 지원 프로그램	■
공정거래/반부패 프로그램	■
소비자 안전 관련 인증	■
정보보호 안전 관련 인증	■
사회공헌 프로그램	■

▣ : 양호 ■ : 미흡 □ : 확인불가

Governance

항목	현황
주주의결권 행사 지원제도	■
중장기 배당정책 보유	■
이사회 내 사외이사 보유	▣
대표·이사회 독립성	▣
감사위원회 운영	■
감사 업무 교육 실시	■
지배구조 정보 공개	▣

▣ : 양호 ■ : 미흡 □ : 확인불가

▶ 에너지, 용수 사용 절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여성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음.
▶ 이사회 내 사외이사 비중이 25%로 이사회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으나, 감사위원회는 운영하지 않음.

* 본 ESG현황은 나이스평가정보사가 분석대상 기업으로 입수한 정보를 요약 정리한 것으로, 분석 시점 및 기업의 참여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I. 기업현황

디스플레이 및 반도체 장비 전문기업

동사는 디스플레이 및 반도체 장비, 부품에 대해 자체 개발 및 생산 역량을 확보하고 있으며, 국내외 우수 기업을 주요 고객사로 확보하여 시장 내에서 안정적인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 개요

동사는 2002년 3월 스피닉스로 설립되어 2017년 02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었으며, 디스플레이 장비, 반도체 장비용 부품 및 소재 등의 제조,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다.

2021년 3분기 공시자료에 따르면, 본사는 충남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4산단2길 19에 소재해 있고, 임원은 사내이사 3명과 사외이사 1명 그리고 감사 1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임원을 포함하여 총 145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표 1. 기업 현황

구분	내용	구분	내용
대표이사	김팔곤, 양상재	임직원 수	직원 140명, 임원 5명
설립일	2002년 03월	상장일	2017년 02월 (코스닥)
주요 제품	디스플레이 세정 장비, 박리 장비 반도체 CMP 패드, UV LAMP 외	지식재산권	국내 등록 특허 48건 외

*출처: 3분기 공시자료 및 특허정보검색서비스(2021), NICE평가정보(주) 재구성

■ 주요 주주 및 계열회사 현황

최대주주는 24.34%의 지분을 보유한 한경희 이사회 의장이며, 김팔곤 공동대표이사가 4.86%, 양상재 공동대표이사가 2.18% 외 특수관계인 6인을 포함하여 총 31.79%를 보유하고 있다.

동사는 자동화 장비 전문기업인 엠에스솔루션과 OLED 공정용 OMM MASK를 생산하는 위폼스 2개의 비상장 계열회사를 보유하고 있다.

표 2. 주요 주주 및 계열회사

주요 주주	지분율(%)	계열회사
한경희	24.34	(주)엠에스솔루션
김팔곤	4.86	
양상재	2.18	위폼스(주)

*출처: 3분기 공시자료(2021), NICE평가정보(주) 재구성

■ 대표이사 정보

김팔곤 공동대표이사는 영남대학교 기계공학과 출신으로 동사를 설립하고 약 20년간 재직하며 대표직을 수행 중이다. 양상재 공동대표이사는 한양대학교 전자통신공학과 출신으로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에서 근무했고, 동사에서 약 6년간 경영에 참여하고 있다. 두 대표이사는 주요 사업에 대한 높은 이해를 바탕으로 경영 전략 수립, 사업 관리를 주도하고 있다.

■ 주요 사업 현황

동사는 디스플레이 장비 및 디스플레이/반도체용 부품, 소재 제조를 주요 사업 분야로 영위하고 있으며, 2021년 3분기 매출 기준, 장비는 76.11%, 부품, 소재는 23.89%의 매출 비중으로 확인되었다. 주요 매출 분야인 디스플레이 장비 사업에서는 자동화세정 장비, 박리 장비, 식각 장비 등을 생산하고 있으며, 부품, 소재 사업에서는 CMP(Chemical Mechanical Polishing, 화학적 기계적 연마) 패드와 박테리아 살균용 UV LAMP 등을 생산하고 있다.

그림 1. 사업 구성



*출처: 동사 홈페이지(2021), NICE평가정보(주) 재구성

■ 연구개발 활동

동사는 TFT-LCD 장비를 개발하며 박리, 식각, 세정 기술 등 다양한 공정 기술을 확보하고 있고, 현재는 OLED 공정 장비로 확대 적용하여 고효율, 신뢰성, 안전성 등 품질 개선을 위해 연구개발을 지속하고 있다. 특히, 연구개발 투자 효율성을 높이고 연구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정부 부처가 주관하는 국가 연구개발 과제 및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다양한 연구개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기술(제품)을 강화하고 제품의 신뢰성 향상에 힘쓰고 있다.

표 3. 국가 연구개발 과제 실적

연구과제	연구목적
수용성 마이크로캡슐을 사용한 Oxide CMP용 No-MOCA Polishing Pad	수용성 마이크로캡슐 가공 기술의 개선 및 원료 소재의 다양화를 통해 재료 제거율, 제품간 성능/수명/물성 차이 등이 원하는 수준인 Non-MOCA Polishing Pad를 개발
마이크로버블 오존수와 스팀젯활용 화학증착형 PR 제거시스템 개발	OLED 공정에서 초고해상도 디스플레이 구현에 필요한 미세 패턴 공정에 새롭게 사용할 화학증착형 포토레지스트 제거를 위한 공정 개발
CMP 공정용 Polishing Pad 재활용 기술 개발	사용된 Polishing Pad의 가공기술을 개발하여 선진기업 제품과 동등한 수준의 성능과 수명을 나타내는 Polishing Pad 개발

*출처: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2021), NICE평가정보(주) 재구성

■ 주요 연혁

2002년 설립된 동사는 디스플레이 장비와 반도체 장비용 소재, 부품을 생산하며 시장에 참여하고 있다.

공인기관으로부터 ISO, 이노비즈, 벤처기업 등의 인증을 획득하여 품질, 환경경영체제를 인정받고 있으며,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등록된 기업부설연구소를 2004년부터 운영하며 꾸준히 기술 개발을 수행 중이다.

2010년 100만불 수출의 탑 수상에 이어 2016년 1,000만불 수출을 달성하며 목표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표 4. 주요 연혁

일자	내용
2021.07	아산4사업장(OMM MASK 전용 공장) 준공
2020.11	위폼스(주) 지분 66% 취득
2020.04	(주)엠에스솔루션 지분 80% 취득
2017.02	코스닥 시장 상장
2016.12	1,000만불 수출의 탑 수상
2011.04	ISO 14001 인증 획득
2010.07	100만불 수출의 탑 수상
2008.02	UV LAMP 국산화 개발 및 납품
2006.03	상호 변경 : 에프엔에스테크(주)
2005.12	ISO 9001 인증 획득
2005.06	이노비즈 인증 획득
2004.03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2003.08	소재부품전문기업 인정
2003.03	벤처기업 인증 획득
2002.03	스피닉스(주) 설립

*출처: 동사 홈페이지 및 3분기 공시자료(2021), NICE평가정보(주) 재구성

II. 시장 동향

OLED 중심의 디스플레이 산업 성장 전망

디스플레이 장비 및 반도체 부품, 소재 산업은 전망 산업인 디스플레이, 반도체 산업 경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어 종속성이 높다. 관련 어플리케이션 확대, COVID-19에 따른 가전제품 수요 증가 등이 시장 확대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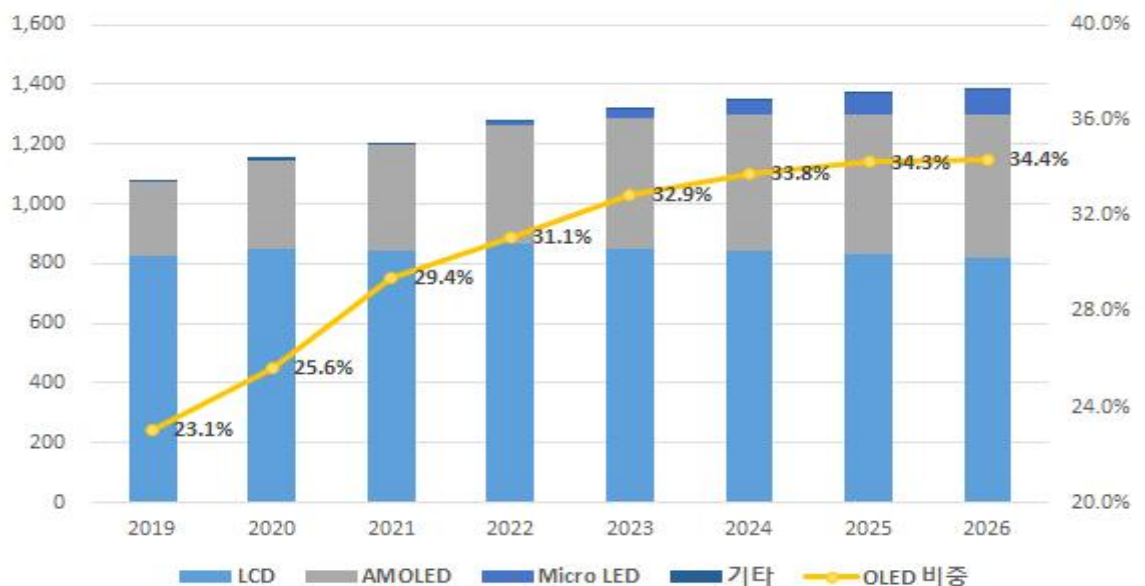
■ 디스플레이 시장 현황

디스플레이 장비 및 부품의 전망 시장인 디스플레이 시장은 주요 수요처인 TV, 스마트폰 시장이 성숙기에 진입하고 신규 수요 창출이 부진하여 정체된 성장률을 보이는 중이다.

LCD는 중국의 투자 확대로 치킨게임이 발생하고 있지만, 이러한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LG디스플레이 및 삼성디스플레이는 생산능력을 확대하고, 대형 OLED 같은 신제품을 지속적으로 출시하면서 해당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OMDIA와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KDIA)에 따르면 2021년 세계 디스플레이 시장규모는 전년 대비 3.8% 성장한 1,205억 달러 규모의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되고, 2026년에는 1,39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동기간 전체 디스플레이 중 LCD의 비중은 70%에서 58%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 반면, OLED 비중은 29%에서 34%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림 2. 세계 디스플레이 시장규모 (단위 : 억 원)



*출처: OMDIA 및 KDIA(2021), NICE평가정보(주) 재구성

■ 국적별 디스플레이 시장 점유

전체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한국의 점유율이 다소 하락하는 가운데 중국의 점유율은 빠르게 상승하여 2020년에는 한국을 추월했다. 2020년 상반기 기준 중국은 최대 LCD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COVID-19의 영향으로 근로자 복귀 지연, 부품·소재 수급 이슈 등으로 생산 가동률이 하락하여 수주는 다소 부진이 예상된다.

OLED는 국내 기업이 선도하며 안정적으로 생산설비를 가동 중이나 COVID-19의 세계적 확산으로 국내 OLED 제조기업의 해외투자가 영향을 받고 있다. OLED 시장은 한국이 압도적인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으나 2018년 이후 중국이 투자 확대, 자국 기업과 협력 등을 통해 한국을 추격 중이다.

중소형 OLED는 삼성디스플레이의 경쟁우위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며 대형 OLED는 LG디스플레이가 글로벌 독점적 지위를 확보하고 있다. 한편, 대형 OLED의 경우 중국 디스플레이 제조사인 BOE가 LG디스플레이를 맹렬히 추격하고 있어 이후에는 고객 확보 등에 따라 선두기업 지위를 위한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국내 기업의 기술력 제고, 수요처 다변화, 원가관리 강화 등이 필요하다.

표 5. 국적별 디스플레이 시장 점유율 (단위: %)

국적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상)
한국	45.9	44.5	42.8	40.2	36.6	30.3
중국	17.6	21.0	25.0	31.0	36.8	42.6
대만	25.7	26.2	24.4	21.9	22.5	24.5
일본	9.9	7.4	6.6	5.9	3.6	2.1
기타	0.9	0.9	1.2	1.0	0.6	0.5

*출처: OMDIA 및 KDIA(2021), NICE평가정보(주) 재구성

■ 반도체 CMP 장비 및 부품 시장 현황

반도체 CMP 장비 및 부품 분야는 CMP 공정 장비와 각종 부품, 소모품 등이 포함되며, 패드, 홀딩 링, 브러시 등이 주요 품목으로 구성된다.

중소기업기술로드맵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반도체 CMP 장비 및 부품 시장은 2018년 약 12억 달러에서 2024년 약 19억 달러로 연평균 7.52%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아시아 시장이 가장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으며, 2024년에는 전체 시장의 약 50%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6. 세계 반도체 CMP 장비 및 부품 시장규모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CAGR
북미	390	420	450	480	510	550	590	7.14%
유럽	250	270	280	300	320	340	362	6.36%
아시아	580	630	680	730	790	860	931	8.21%
합계	1,220	1,310	1,410	1,520	1,630	1,750	1,885	7.52%

*출처: 중소기업기술로드맵 반도체(2021), NICE평가정보(주) 재구성

아시아 시장에서는 한국, 중국, 일본, 대만이 주요 시장 지역이며 해당 국가들이 전체 아시아 시장에서 약 88%를 차지하고 있다.

대만은 아시아 지역 중 가장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고, 중국은 현재 국내보다 시장 규모가 작지만 8.99%의 높은 성장률을 나타내며 2023년에는 국내와 비슷한 수준의 시장규모를 형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7. 국적별 반도체 CMP 장비 및 부품 시장규모 (단위: 억 원)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CAGR
한국	1,629	1,745	1,861	2,094	2,211	2,327	2,499	7.39%
중국	1,513	1,629	1,745	1,978	2,094	2,327	2,536	8.99%
일본	814	931	931	1,047	1,047	1,163	1,237	7.22%
대만	1,978	2,094	2,211	2,444	2,560	2,793	3,008	7.24%
기타	814	814	931	1,047	1,163	1,280	1,422	9.74%
합계	6,750	7,215	7,680	8,612	9,077	9,892	10,703	7.99%

*출처: 중소기업기술로드맵 반도체(2021), NICE평가정보(주) 재구성

Ⅲ. 기술분석

연구개발 및 지식재산권 확보를 통한 기술 진입장벽 구축

동사는 경쟁 기술 대비 차별적 우위성을 바탕으로 디스플레이 및 반도체 공정에서 사용되는 세정 기술, 소재 증합 기술 등을 핵심 기술로 확보 중이다. 또한, 차세대 기술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연구개발을 지속하고 있다.

■ 디스플레이 제조 공정

디스플레이 종류는 크게 별도의 광원을 필요로 하는 액정 방식의 LCD(Liquid Crystal Display)와 자체 발광 방식의 OLED(Organic Light Emitting Diodes) 두 가지로 분류된다.

또한, OLED는 TFT(Thin Film Transistor)가 없고 순간적으로 점등되는 PMOLED(Passive Matrix OLED)와 TFT에 의해 상시 점등되는 AMOLED(Active Matrix OLED)로 구분되고 있다.

디스플레이 패널 종류에 따라 상세 공정 구성은 차이가 있으나, 증착, 세정, 노광, 식각 및 검사 등의 핵심 공정은 공통적으로 구성된다.

OLED 공정은 디스플레이 원판을 제조하는 전공정과 커팅, 구동IC 부착 등의 공정을 거친 후 완제품에 적용될 디스플레이를 생산하는 후공정으로 분류된다. 전공정은 TFT공정, 유기재료 증착공정, 봉지공정으로 나뉘며, 정밀도를 비롯하여 공정별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한 장비들이 적용되고 있다.

그림 3. 디스플레이 패널 제조 공정도



*출처: LG디스플레이 블로그(2021), NICE평가정보(주) 재구성

■ 디스플레이 세정 장비

디스플레이 생산 시 기판 위에 세정제 또는 순수를 사용하여 자연산화막, 이온, 불순물 등을 제거하는 공정이 필수로 수반된다. 동사는 Roll Brush 방식의 제트 노즐을 활용한 고압 세정으로 해당 공정 장비를 개발하여 상용화시켰다.

적용 분야는 TFT LCD, PDP, AMOLED 등 다양한 디스플레이 종류에 가능하고, 해당 장비는 제품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품질 관리가 용이한 기술로 파악된다.

그림 4. 디스플레이 세정 장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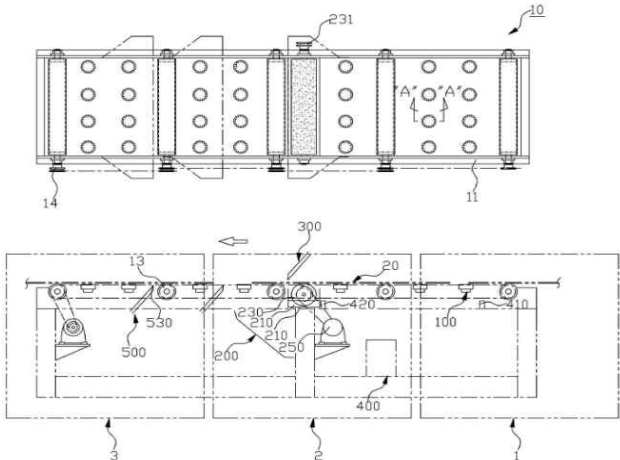


*출처: 동사 홈페이지(2021), NICE평가정보(주) 재구성

기존의 세정 장비는 내부에 접촉하는 이송용 롤러로 인해 세정 후에도 기판 하부에 롤러 자국이 남고, 세정 스프레이의 압력에 의해 분사되는 세정액이 주변으로 튀면서 주변이 오염되는 문제가 종종 발견되었다.

동사는 이송용 롤러 사이에 다수 열로 장착된 음압 발생장치를 구성하여 기판의 유동을 억제하고 기판 상면 패턴의 손상을 최소화했으며, 기판 상부에 에어 나이프를 구성하여 세정 시 기판 상면과 주변에 튀는 것을 원천적으로 방지하도록 하였다.

그림 5. 세정 장비에 적용된 주요 특허 대표도(10-13876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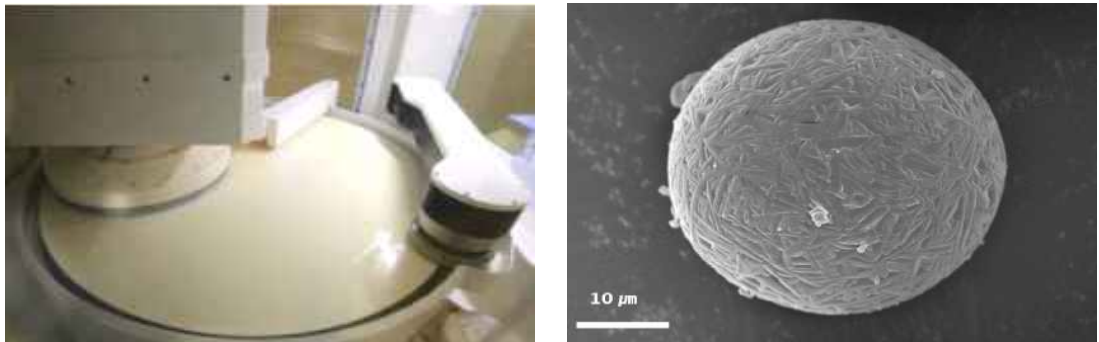
*출처: 키프리스(2021), NICE평가정보(주) 재구성

■ 반도체 CMP 패드

반도체 웨이퍼는 표면의 평탄화가 생산 수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분으로, 해당 작업을 위해서는 연마 공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웨이퍼를 연마 패드의 표면 위에 접촉하도록 한 상태에서 슬러리를 공급하여 웨이퍼 표면을 화학적으로 반응시키면서 헤드와 폴리싱 테이블을 상대 운동시켜 웨이퍼의 미세 요철 부분을 평탄화 시킨다.

연마 공정 시 웨이퍼에 전달되는 연마 슬러리의 양을 증가시키기 위해 기존에는 연마 패드에 물리적 발포제로 기공을 형성하였는데, 해당 방법에 의한 연마는 수용성 물질에 의해 용해되지 않는 셀을 잔여물로 배출하여 웨이퍼에 손상을 발생시키는 문제가 발견되었다. 동사는 해당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국책과제 연구를 통한 수용성 중공 마이크로캡슐이 혼합되어 제조되는 연마 패드를 개발하였다. 해당 제품은 물리적 발포제로 형성된 패드에 비해, 불순물을 감소시킬 수 있고, 웨이퍼에 연마 슬러리 공급을 증가시킬 수 있어 효과적인 연마를 가능케 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림 6. 반도체 CMP 패드 및 주요 특허 도면(10-1911498)



*출처: 동사 홈페이지 및 키프리스(2021), NICE평가정보(주) 재구성

■ 지식재산권 확보를 통한 기술장벽 구축

동사는 2021년 11월 기준, 주요 제품에 관련하여 등록된 특허 48건을 보유하고 있으며, 고객들의 생산성 및 안정성에 대해 높아지는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 내구성 보완 및 신뢰성이 향상된 제품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시스템 설계/해석 기술, 화학체 중합 기술, 기구 신뢰성 확보 등의 기술 구축을 통해 시장을 선도하는 제품군 확대가 전망된다.

표 8. 주요 특허 현황

등록번호	특허명	내용
10-2190903	유체 혼합물 분사 장치 및 세정 장치	유체 혼합물의 운동 에너지 손실과 분사 압력 및 속도 저하를 방지하여 분사 장치의 작동 효율을 제고
10-1911498	연마 패드 및 이의 제조 방법	수용성 중공 마이크로캡슐이 혼합된 프리폴리머를 중합시켜 형성되는 연마 패드 및 연마 패드의 제조 방법
10-1690996	다공성 연마 패드 및 이의 제조 방법	프리폴리머와 당류 물질의 반응 정도를 제어하여 생성되는 기공의 크기 및 기공률을 용이하게 제어
10-1387613	디스플레이 기판 세정장치	이송용 롤러와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세정장치 주변 오염을 방지하여 기판 상면 패턴의 손상을 최소화

*출처: 키프리스(2021), NICE평가정보(주) 재구성

■ SWOT 분석

그림 7. SWOT 분석



*출처: NICE평가정보(주)

▶▶ (Strength Point) 축적된 기술력으로 안정적인 사업 영위 기대

동사는 디스플레이 및 반도체 시스템, 요소 기술의 개발과 생산에 대한 기술적 노하우를 장기간 축적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고품질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또한, 공공기관과의 연구 개발 과제를 통해 기술 내재화를 하고 있고, 미래 시장에 대한 예측을 통해 향후 수요 확대가 예상되는 제품의 판매 전략과 시장 로드맵을 확립하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서도 즉각적인 대응과 안정적인 매출 시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 (Weakness Point) 소수 기업에 대한 매출 집중

국내외 주요 디스플레이 기업과 오랜 거래를 하고 있으나, 소수 기업에 대한 매출 의존도가 높다. 국내외 기업과의 추가적인 거래처 확보를 통한 매출처의 다각화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Opportunity Point) 목표 시장의 규모 및 성장세 기대

디스플레이 장비 시장은 대표적인 수주 기반 산업 분야로 전방 시장의 업황 및 시장 사이클에 의한 영향을 크게 받는다. LCD 시장은 성장기를 지나 성숙기에 접어들었고, OLED 시장은 수요 증가와 패널 대형화 추세를 맞으며 성장이 가속화되고 있다. 국내 삼성디스플레이 및 LG디스플레이는 중소형, 대형 OLED 분야에 대규모 투자를 지속하고 있고, 중국 기업들은 정부 지원을 바탕으로 공격적인 투자를 단행하고 있다. 동사는 기존 LCD 제조 장비뿐만 아니라 OLED 제조 장비의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어 변화하는 시장에 유연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 (Threat Point) COVID-19로 인한 산업의 부정적 영향

기업의 공장 가동 중단 및 재택근무 병행으로 장비 공급망에 차질이 생기고, 소비 심리 위축과 경제 활동 제한으로 관련 산업의 일부 부정적 영향이 예상된다. COVID-19의 장기화로 시장에서 소화하기 힘든 악성 재고가 증가해 제품 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짐에 따라 신규 라인 증설에 일부 난항이 예상된다. 동사는 공급망에 문제가 생길 경우를 대비해 대체 공급자와 계획을 수립하고, 새로운 수요 시장의 변화를 빠르게 포착해 민첩한 생산과 공급을 조정하는 등의 대응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IV. 재무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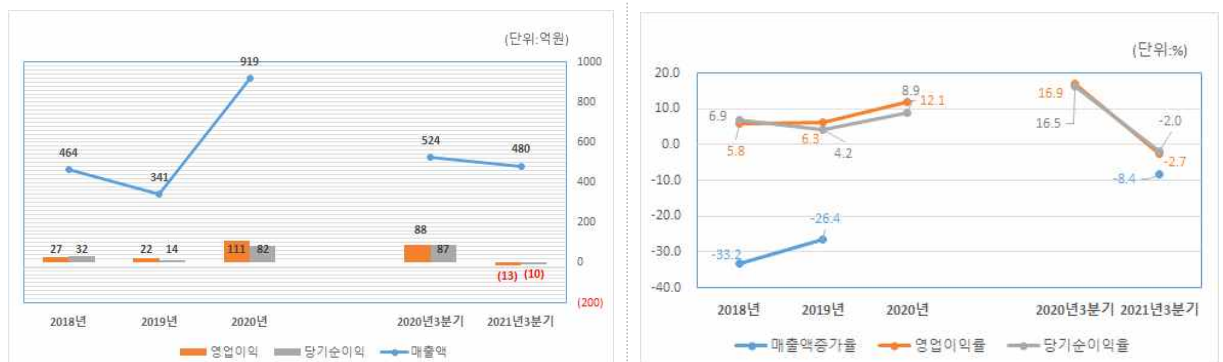
디스플레이 시장 성장세 속 실적 증가

2020년도에는 국내 주요 고객사의 디스플레이 설비 투자가 증가하면서 동사의 매출과 이익이 급증하였다.

■ 2020년 매출과 이익 모두 큰 폭 증가

동사는 국내 주요 고객사의 신규 투자가 증가하면서 2020년도의 매출액이 크게 증가한 919억 원을 기록하였다. 부문별로는 디스플레이 장비 대형 공급 계약을 연달아 수주하면서 디스플레이 장비 부문 매출액은 752억 원을 기록하였으며, UV Lamp, TOC 산화장치, CMP pad 및 Mask 세정 등 부품소재 부문도 고객 다변화 등의 노력으로 외형 성장하여 167억 원의 매출을 기록하였다. 수익성 측면으로는 외형 성장으로 판관비 부담이 완화되어 매출액영업이익률은 12.1%의 양호한 수치를 기록하였다.

그림 8. 동사 연간 및 3분기 요약 포괄손익계산서 분석



매출액/영업이익/당기순이익 추이

증가율/이익률 추이

*출처: 동사 사업보고서(2020), 3분기보고서(2021)
*18년과 '19년 수치는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작성된 별도재무제표의 수치임.

그림 9. 동사 연간 및 3분기 요약 재무상태표 분석



부채총계/자본총계/자산총계 추이

유동비율/자기자본비율/부채비율 추이

*출처: 동사 사업보고서(2020), 3분기보고서(2021)

■ 21년 3분기 전년대비 적자전환

2021년 3분기 누적 매출액은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8.4% 감소한 480억 원을 기록하였으며, 원가율의 상승과 경상연구비와 인건비 등의 판관비가 증가하면서 매출액영업이익률은 -2.7%로 적자 전환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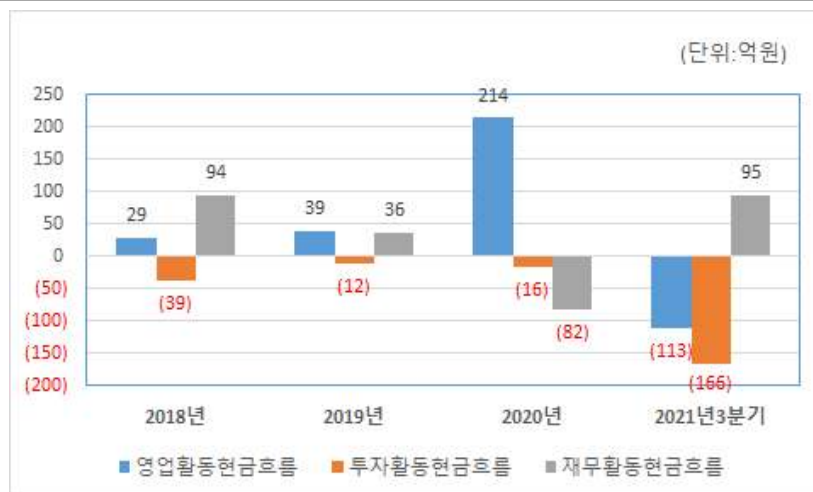
2021년 3분기 자산총계 규모는 969억 원으로 전기 결산시점에 비해 줄어들었는데 주 감소 원인은 선수금의 감소로 부채총계가 줄어들었고, 손실로 인해 자본총계도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재무안정성 지표는 자기자본비율 60.6%, 부채비율 65.0%, 유동비율 151.2%로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 현금흐름 개선

2020년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수익성 개선으로 전년도에 비해 대폭 개선되어 214억 원이 유입되었다. 이를 기반으로 차입금 상환에 67억 원, 자기주식 취득에 20억 원 등을 지출하였으며, 남은 자금은 현금성자산으로 축적하여 양호한 자금흐름을 보였다.

그림 10. 동사 현금흐름의 변화



*출처: 동사 사업보고서(2020), 3분기보고서(2021)

V. 주요 변동사항 및 향후 전망

고부가가치 장비 공급으로 안정적인 사업영위 기대

COVID-19의 장기 지속에 따른 전후방 시장 영향, 국내외 주요 기업의 투자변동은 일정 수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보유 중인 세정, 박리 장비 기술 등을 기반으로 장비의 꾸준한 수요와 시장의 양호한 확대에 동사의 성장세는 긍정적으로 전망된다.

■ OLED 기업 설비 투자 확대에 수주 확대 전망

COVID-19로 인한 모바일, 가전 등 전방 산업의 제품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 기업들의 OLED 양산 설비 투자 확대는 동사에게 기회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술적 난이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LCD 부분에서는 중국이 공격적인 설비 투자를 통해 자국 기업의 점유율을 확대해 왔으나, OLED 부문은 낮은 수율로 인한 점유율 확대가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동사는 주요 장비 및 부품의 수율 향상, 생산성 제고를 달성했으며, 중국 정부는 공장 가동률이 높을수록 보조금을 확대 지원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 디스플레이 기업에 대한 OLED 장비의 추가 수주 및 공급 확대가 전망된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중소형 OLED에 집중하고 있으며 6세대(원장 1,500×1,850mm) 설비 증설을 지속하고 있고, LG디스플레이는 대형 OLED에 집중하여 8세대(원장 2,200×2,500mm) 이상 W-OLED 설비 증설에 집중하고 있다.

국내 기업이 세계 OLED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만큼, 국내 기업에 납품하고 있는 동사는 안정적인 매출 시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반도체 시장 변동에서도 유연한 대응 기대

2018년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의 영향으로 세계적으로 전반적인 산업 침체가 있었으며 특히 반도체 장비 시장은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2019년 하반기 양국의 무역 협상에서 부분적 합의를 끌어내어 2020년부터 반도체 장비 시장을 포함한 관련 시장이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파악되었다.

동사는 CSOT, BOE 등 중국의 주요 기업을 매출처로 보유하고 있으며, 반도체 CMP 장비 수요 증가와 중국 정부의 반도체 산업 보조금 정책 증가에 따른 시장 전망은 동사의 반도체 부품, 소재 부문 매출 비중을 높이는 데 긍정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 증권사 투자의견

작성기관	투자의견	목표주가	작성일
	Not Rated	-	2021-08-31
유안타 증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반도체용 CMP 재생 PAD, 디스플레이용 OMM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확인되기 시작 • 부품/소재 매출은 올해 200억원에서 내년 550억원(+175% YoY)으로 매출비중 48%까지 확대 전망 		

■ 시장정보(주가 및 거래량)



*출처: Kisvalue(2021.12)